

## 好惡 人物들에 관한 信念의 數와 評價強度

洪 大 植  
忠北大學校 心理學科

본 연구는 (1) 負的 人物보다 正的 人物에 대한 속성들과 공통점들에 관한 신념들이 더 많고, (2) 따라서, 負的 人物보다 正的 人物에 대한 평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 52명의 남자와 여자 대학생들에게 正的, 負的, 中性的 人物들에 관한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을 쓰도록 하였고, 이들 신념에 대한 호오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속성들, 共通性들 및 이 둘의 합계의 면에서, 正的 人物들에 관한 신념수들이 負的 人物들이나 中性的 人物들에 관한 신념수들보다 더 많았고, 信念들에 부여된 評價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었다. 여자 피험자들은 남자 피험자들보다 호오인물들에 대해 더 많은 신념들을 갖고 있었으나, 이 신념들에 부수된 評價值들에서는 남녀 피험자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피험자들은 동성보다 이성 인물들에 대해 더 높은 評價를 하였으며, 이성인물들보다 동성인물들에 대해 더 많은 공통점들을 지각하였다. 三元關係에 관한 理論들의 수정과 확장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의 의미들이 논의되었다.

社會心理學에서 분석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관계는 二者關係이다. 그러나 Newcomb (1953, 1959)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二者間의 關係나 態度는 對象이 없는 환경적 진공 속에서 성립되는 일이 드물다. 따라서, 社會關係의 分析은 두 사람과 이 둘에 관계된 어떤 對象으로 이루어진 體制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三元的 體制들에 관한 理論化에서 Heider (1958)는 三元關係들의 부호들의 組合에 의해서 體制의 均衡如否를 규정하였다.

Heider (1958)의 均衡理論은 여러 실험들에 의해서 검증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未完成關係의 예측과 같은 認知的 反應들에 관한 실험들에서는 지지받아 왔으나 愉快度의 評定과 같은 感情的 反應들에 관한 실험들에서는 지지받지 못하여 왔다(평론을 위해서는 洪大植, 1982; 1985 참조). 한편, 洪大植(1985)은 三元的 社會關係의 均衡에 관한 理論화에서는 知覺者인 P의 三元的 關係

들에 대한 主觀的 知覺들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主觀的 知覺들에서 중요한 要素들은 P와 O의 關係(P/O關係)의 正이나 負에 관한 知覺과 P와 X(P/X)와 O와 X(O/X) 관계들의 부호의一致如否의 知覺이라고 提案하였다. 이러한 提案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日常生活에서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對人關係나 態度關係는 P-O-X理論에서 취급하고 있는 단순한 狀況들보다도 훨씬 더複雜하다고 주장하고, P/O關係를 中心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대인관계들은 時間的 次元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對象들이 두 사람 사이에 介在되게 된다고 提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실제의 對人關係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介在되는 많은 對象들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理解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Newcomb (1961, 1963), Kandel (1938), Byrne (Byrne, 1961; Byrne과 Nelson, 1964) 등의 연구들은 態度의 類似性이나 그 知覺이 對人魅力을決定짓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들은 二者間의 對人關係의構造에는 多數의 對象(X)들에 대한 두 사람의 態度의 一致如否들을 포함시켜야만 된다는 입장을 強力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二者關係 속에서 知覺者 P는 O와 關聯해서 態度의 一致如否만을 知覺하지는 않는다. 從來의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들(예 ; Aderman, 1969, Gutman과 Knox, 1972 및 Price, Harburg 및 Newcomb, 1966)은 三元的 關係들을 각 關係의 感情關係(sentiment relation)만을 사용해서 피험자들에서 기술하여 주었다. 그 結果로, 많은 연구들은 態度一致度의 效果를 얻어왔다. 이러한 研究典型들과 結果들은 Heider (1958)가 원래 제안한 關係들의 '두 類型, 즉 感情關係(sentiment relation)와 單位關係(unit relation)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Heider(1958)의 單位關係와 感情關係 사이의 區分에 따르면, P/X 關係와 O/X 關係는 각각 이 두 관계들 중의 어느 것으로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P가 지각하는 P/X와 O/X 關係들은 感情關係와 單位關係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類型의 관계들을 이루게 된다. 첫 번째 類型은 P/X와 O/X 關係들이 모두 單位關係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들(예 ; P와 O가 어떤 써클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P는 O에 대해 어떤 공통성(두 단위관계들이 모두 正이나 負인 경우에서)이나 비공통성(두 단위관계들이 각각 正과 負인 경우에서)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類型은 P/X와 O/X 關係들이 모두 感情關係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들(예 ; P와 O 모두는 "민주적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P는 O에 대해 어떤 공통적(두 감정관계들이 모두 正이거나 負인 경우에서)이거나 비공통적(두 감정관계들이 각각 正과 負인 경우에서) 속성을 지각하게 될 것이고 상호간의 태도의 지지나 비지지를 지각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類型의 關

係들은 이 분야의 이전 연구들에서 주로 연구된 것들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態度一致度의 強力한 效果를 얻어 왔다. 첫 번째의 單位-單位 類型과 두 번째의 感情-感情 類型은 P와 O 간의 어떤 공통점이나 비공통점의 존재를 지각하게 만드는 점에서 心理的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세 번째 類型은 P/X 關係가 感情關係로 구성되어 있고 O/X 關係가 單位關係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類型의 관계들(예; P는 “성실성”을 좋아하고 O는 “성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은 P로 하여금 O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고 지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 類型에서 P는 자신과 O가 어떤 대상에 대해 공통적 관련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기보다는 다만 O가 어떤 속성을 소유한다고 지각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類型은 P/X 關係가 單位關係로 구성되어 있고 O/X 關係가 感情關係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類型의 關係들(예; P는 “성실성”을 갖고 있고, O는 P의 “성실성”을 칭찬하는 상황)은 P로 하여금 O가 자신에게 매력이나 비매력을 느끼고 있다거나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속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각하게끔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들은 P로 하여금 O에 관한 어떤 일반적 屬性들에 관한 추리를 하게끔 만들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의 感情-單位 類型과 네 번째의 單位 類型은 P로 하여금 O의 어떤 屬性들을 지각하게끔 만드는 점에서 心理的으로 서로 유사한 관계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면, P와 O의 어떤 공통으로 관련된 대상(X)에 대한 관계들은 單位와 感情 關係들의 組合에 의해서 P로 하여금 자신과 O 간의 어떤 共通性의 知覺을 일으키거나 O의 屬性에 관한 知覺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分析은 P와 O의 어떤 대상에 대한 공동의 관련은 P로 하여금 O에 관한 屬性이나 자신과 O의 共通性에 關한 信念들(beliefs)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와 O의 X에 대한 공동 관련의 程度나 性質은 P의 O의 屬性에 대한 지각이나 두 사람 간의 共通點들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信念들을 측정함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 彙結되게 된다.

Heider(1958)의 균형의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他人에 대한 感情들은 그 심리적 부호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호감과 단위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와 오감과 단위관계- 없음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 균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가정을 방금 논의한 P/X과 O/X 관계의 組合들에 적용시키면, P/O 關係가 正의일 때에는 P의 O에 관한 긍정적 속성들이나 공통성들의 지각이 부수되고 P/O 關係가 負의일 때에는 P의 O에 관한 부정적 속성들이나 비공통성들의 지각이 부수된다는 명제가 성립되게 된다. 그러면, P/O 關係가 正일 때와 負일 때에 부수되는 O에 관한 속성들이나 P와 O 간의 공통

성들의 지각들의 數와 그것들의 評價의 強度의 差異의 樣相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관대성편향(leniency bias) 또는 肯定性偏向(positivity bias)의 개념(Bruner와 Tagiuri, 1954 ; Sear와 Whitney, 1973 참조)에 의하면, 사람들은 他人들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보다도 긍정적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Zajonc(1968)의 연구에서는 호의적인 단어들이 비호의적 단어들보다도 더 높은 빈도수를 갖는다는 것을 보였으며, Smith와 Dixon(1971)은 “좋은” 동사들과 “중성적” 동사들이 “나쁜” 동사들보다 더 빈도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正的 P/O 關係에서는 負的 P/O 關係에서 보다 더 많은 O의 屬性들이나 P와 O간의 共通點들을 지각한다는 것이 예언될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은 P와 O간의 相互作用의 깊이와 빈도와 면에서도 예언될 수 있다. 사회적 침투이론(Altman과 Taylor, 1973)에 의하면, 사람들이 서로 친밀해지는 것은 각 개인의 생활영역의 넓이차원과 깊이차원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사람들은 正的 P/O 關係에서는 負的 P/O 關係에서 보다 더 많은 상호간에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대인적 지식이나 경험들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肯定性偏向의 개념이나 相互作用의 빈도의 면에서, 負的 P/O 關係에서 보다 더 正的 P/O 關係에서 더 많은 O의 屬性들이나 P와 O 간의 共通點들의 지각이 있게 될 것이 예언된다.

만일 負的 P/O 關係들보다도 正的 P/O 關係들에서 더 많은 O의 屬性들이나 O와의 共通點 知覺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P의 O에 대한 全般的 評價는 負的 P/O 關係보다도 正的 P/O 關係에서 더 클 것이 예언될 수 있다. 즉, 正의인 P/O 關係에서의 O에 대한 正의 屬性들의 評價值들의 합계는 負의 P/O 關係에서의 O에 대한 負의 屬性들의 評價值들의 합계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될 주요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1) 負의 P/O 關係에서보다도 正의 P/O 關係에서 他人(O)의 屬性들이나 P와 O 간의 共通性들에 관한 信念들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 (2) 負의인 他人(O)에 대해서보다도 正의인 他人(O)에 대해서 屬性들이나 共通點들의 評價強度가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주요 가설들을 검증하면서, 부수적으로 피험자들의 性別과 對象 인물의 性別에 따른 效果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方 法

**被驗者** 忠北大學校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98명과 교직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 25명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반응누

락자들인 남자 8명과 여자 6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남자와 여자 피험자들을 등수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에서 5명의 자료가 무선적으로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 피험자의 수는 각각 52명이 되었다.

**材料 및 節次**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피험자들의 동성인물들과 이성인물들에 관한 屬性들과 유사성들(공통점들)의 知覺이나 信念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지”라는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질문지는 8 절지 크기의 3매의 종이로 구성되었으며, 첫째 장은 피험자들에 대한 지시로 구성되었고 둘째와 세째 장들은 피험자들이 동성인물들과 이성인물들에 관한 屬性들이나 공통점들을 써 넣도록 만든 것이었다.

피험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각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싫어하는 인물” 및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간의 인물”을 각각 써 넣도록 하였다. 각각의 인물들은 피험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서로 알고 있고 연령이 비슷한 (피험자 자신과 5세 미만의 연령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써 넣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싫어하는 인물 및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간의 인물 順으로 써 넣도록 만든 것은 반응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었다. 즉,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인물을 먼저 써 넣게 하면, 피험자들이 인물들의 호오기준이나 기점(anchor)들이 부족 때문에 인물을 써 넣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피험자들에게 각 인물들에 대해 성명의 略字나 기호를 써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적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의 호오인물들에 관한 속성들이나 공통점들(또는 유사성들)에 관한 신념들의 數와 그 評價的 強度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인물들에 대한 속성들과 공통점들을 구분해서 빈 칸에 써 넣도록 하였다.

호오인물들의 속성들을 관찰한 信念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인물의 “성격특징들과 자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써 넣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와의 유사성들이나 공통점들(또는 비유사성들이나 비공통점들)에 관한 지각들이나 신념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 인물 간의 취미, 가치, 태도, 기호 등에서 유사한 점들이나 비유사한 점들(예, “종교가 같다”, “시국관이 다르다” 등)이나, 동창관계, 써클 멤버 등에서의 공통점들(예, “고향이 같다”, “같은 써클에 들어있다” 등)이나 비공통점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많이 써 넣도록 하였다.

호오인물들에 대한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評價的 態度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각 속성들이나 유사성들에 대해 評價를 하도록 하였다. 각 특성이나 공통점에 대한 평가치를 얻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그것을 가진 인물이 얼마나 좋거나 싫게 느껴지는가”를 +3에서 -3에 이르는 7개의 숫자들 중에서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옆에 있는 빈칸에 써 넣도록 하였다. 즉, 어떤 특

성이나 공통점을 가진 인물에 대해 피험자가 매우 호감을 느낄 경우에는 + 3, 상당히 호감을 느낄 경우에는 + 2, 약간 호감을 느낄 경우에는 + 1, 좋지도 싫지도 않게 중간으로 느낄 경우에는 0, 약간 쉽게 느낄 경우에는 - 1, 상당히 쉽게 느낄 경우에는 - 2 및 매우 쉽게 느낄 경우에는 - 3의 숫자를 써 넣도록 만들었다.

同性과 異性 인물들에 대한 반응순서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동성과 이성 인물에 대한 반응용지들은 질문지 속에서 무선적으로 둑여졌다.

질문자는 정규의 수업시간에 실시되었고 반응시간은 약 40~50分의 범위이었다. 피험자들은 질문지에서 동성이나 이성의 인물들을 써 넣고, 각 인물의 성격들이나 자질들 또는 공통점들(유사성들)이나 비공통점들(비유사성들)을 써 넣고, 마지막으로 각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에 대한 호오정도를 평가하였다.

**實驗設計 및 資料處理** 실험설계는 2(피험자들의 성별)  $\times$  2(호오인물들의 성별)  $\times$  3(호오의 정도, 즉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싫어하는 인물 및 중간의 인물)의 要因設計이었으며, 피험자들의 性別은 集團間 變因이 되었고 호오인물의 성별과 호오의 정도는 集團內 變因이 되었다. 결과처리는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數와 각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評價強度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數는 피험자들이 기입한 것들의 數를 셈으로써 단순하게 측정되었고, 評價態度는 각 속성들이나 유사성들에 부여된 評價值들을 합계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각 속성들이나 공통점들의 數와 그 評價強度는 각각 속성들, 공통점들 및 이 들의 합계에 대해 變量分析되었다.

## 結 果

本研究의 結果들은 호오인물들의 屬性들이나 피험자들과의 共通點들에 관련된 信念들(beliefs)의 數와 이 信念들에 부수된 評價值들의 強度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 (가) 피험자들의 好惡人物들에 대한 信念들의 數

본 연구의 假說 1에서는 負的 人物보다도 正의 人物에 관한 屬性들이나 피험자들과의 共通點들에 관한 信念들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녀 피험자들의 동성과 이성 인물들에서 정적, 부적 및 중성적 인물들에 대한 個人的 屬性들의 數와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에 관한 信念들의 수가 계산되었다. 表 1에서는 남녀 피험자들의 전체 신념수, 인물의 속성들에 관한 신념수 및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에 관한 신념수의 평균치들이 條件別로 제시되어 있으며, 全體 信念數에 대한 變量分析 結果의 요약이 表 2에 제시되어 있다. 表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상인물들의 호

〈表 1〉 남녀 피험자들의 동성과 이성의 호오인물들에 대한 신념들의 수의 평균치 \*

|                                | 동성인물(b <sub>1</sub> )     |                           |                           | 이성인물(b <sub>2</sub> )     |                           |                           |
|--------------------------------|---------------------------|---------------------------|---------------------------|---------------------------|---------------------------|---------------------------|
|                                | 정적인물<br>(C <sub>1</sub> ) | 부적인물<br>(C <sub>2</sub> ) | 중성인물<br>(C <sub>3</sub> ) | 정적인물<br>(C <sub>1</sub> ) | 부적인물<br>(C <sub>2</sub> ) | 중성인물<br>(C <sub>3</sub> ) |
| 남자<br>피험자<br>(a <sub>1</sub> ) | 6.21<br>(4.33,<br>1.88)   | 4.56<br>(3.38,<br>1.17)** | 4.08<br>(2.81,<br>1.27)   | 6.06<br>(4.27,<br>1.79)   | 4.54<br>(3.50,<br>1.04)   | 4.15<br>(3.10,<br>1.06)** |
| 여자<br>피험자<br>(a <sub>2</sub> ) | 6.83<br>(4.85,<br>1.98)   | 5.37<br>(4.31,<br>1.06)   | 4.62<br>(3.38,<br>1.23)** | 6.67<br>(5.08,<br>1.60)** | 4.92<br>(4.12,<br>.81)**  | 4.56<br>(3.67,<br>.88)**  |

\* 각 칸에서 첫 번째 숫자는 속성수와 유사성수를 합친 것이고, 팔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속성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유사성수임.

\*\* 전체 평균과 하위 평균들의 합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 오차임.

〈表 2〉 全體 倡念들의 數에 대한 변량분석 요약

| 변 산 원     | 자 승 화          | df         | 평 균 자 승 | F        |
|-----------|----------------|------------|---------|----------|
| 피험자간      | <b>891.49</b>  | <b>103</b> |         |          |
| 피험자 성별(A) | 49.08          | 1          | 49.08   | 5.94*    |
| 집단내       | 842.41         | 102        | 8.26    |          |
| 피험자내      | <b>1296.17</b> | <b>520</b> |         |          |
| 대상의 성별(B) | 2.44           | 1          | 2.44    | 1.29     |
| AB        | 1.35           | 1          | 1.35    |          |
| B × 집단내   | 193.38         | 102        | 1.90    |          |
| 호오도(C)    | 496.89         | 2          | 248.44  | 120.60** |
| AC        | .64            | 2          | .32     |          |
| C × 집단내   | 420.14         | 204        | 2.06    |          |
| BC        | 1.57           | 2          | .78     |          |
| ABC       | 1.21           | 2          | .61     |          |
| BC × 집단내  | 178.55         | 204        | .88     |          |

\* p < .05

\*\* p < .01

오도의 효과는  $p < .01$  ( $F = 120.60$ ,  $df = 2/204$ )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C<sub>1</sub>)에 대한 전체 신념수( $\bar{X} = 6.44$ )는 가장 싫어하는 인물(C<sub>2</sub>)에 대한 전체 신념수( $\bar{X} = 4.85$ )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간 인물(C<sub>3</sub>)에 대한 전체 신념수( $\bar{X} = 4.35$ )보다 더 커졌으며, C<sub>1</sub>과 C<sub>2</sub> 사이 ( $t = 11.69$ ,  $df = 103$ ,  $p < .01$ ), C<sub>1</sub>과 C<sub>3</sub> 사이 ( $t = 14.13$ ,  $df = 103$ ,  $p < .01$ ) 및 C<sub>2</sub>와 C<sub>3</sub> 사이 ( $t = 3.67$ ,  $df = 103$ ,  $p < .01$ )의 신념수들의 차이도 모두有意하였다. 따라서 호오인물들에 대

한 全體 信念數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나 중성적 인물보다 더 컸으므로, 假說 1 은 호오인물들에 관한 전체 신념수의 면에서 지지받았다.

信念數에 대한 대상 인물들의 호오도의 效果는 屬性數 ( $F = 88.46$ ,  $df = 2 / 204$ ,  $p < .01$ )와 共通點數(또는 非共通點數) ( $F = 55.19$ ,  $df = 2 / 204$ ,  $p < .01$ )에서 모두 有意하였다. 屬性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 $\bar{X} = 4.63$ )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 $\bar{X} = 3.83$ )과 중성적 인물 ( $\bar{X} = 3.24$ )보다 더 신념수가 많았고, 이들 평균치간의 차이는  $C_1$  과  $C_2$  사이 ( $t = 8.03$ ,  $df = 103$ ,  $p < .01$ ) 및  $C_1$  과  $C_3$  사이 ( $t = 12.64$ ,  $df = 103$ ,  $p < .01$ ) 및  $C_2$  과  $C_3$  사이 ( $t = 5.81$ ,  $df = 103$ ,  $p < .01$ )에서 모두 有義하였으며, 全體 信念數와 동일한 형태를 보여서 假說 1 을 지지하였다. 한편, 共通點數(또는 非共通點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 $\bar{X} = 1.81$ )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 $\bar{X} = 1.02$ )과 중성적 인물 ( $\bar{X} = 1.11$ )보다 더 신념수가 많았고, 이들 평균치간의 차이는  $C_1$  과  $C_2$  사이 ( $t = 9.34$ ,  $df = 103$ ,  $p < .01$ ) 과  $C_1$  과  $C_3$  사이 ( $t = 7.98$ ,  $df = 103$ ,  $p < .01$ )에서 有義하였으나,  $C_2$  과  $C_3$  사이 ( $t = 1.21$ ,  $df = 103$ )에서는 有義치 못하였다.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신념수는 인물의 속성수, 공통점수(비공통점수) 및 이 둘을 합친 전체수에서, 가장 싫어하거나 중성적 인물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아서 假說 1 은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피험자의 性別效果는 表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신념수에서 有義하였고 ( $F = 5.94$ ,  $df = 1 / 102$ ,  $p < .05$ ), 屬性數에서도 有義하였으나 ( $F = 20.47$ ,  $df = 1 / 102$ ,  $p < .01$ ), 共通點數에서는 有義치 못했다 ( $F < 1.0$ ,  $df = 1 / 102$ , ns). 전체 신념수는 남자 ( $\bar{X} = 4.93$ )보다 여자 ( $\bar{X} = 5.49$ )가 더 많았고, 屬性數도 남자 ( $\bar{X} = 3.55$ )보다 여자 ( $\bar{X} = 4.23$ )가 더 많았으나, 共通點數는 남자 ( $\bar{X} = 1.26$ )와 여자 ( $\bar{X} = 1.31$ )가 비슷하였다. 따라서 信念數의 全體數에 대한 남녀 피험자간의 차이는 주로 屬性數에 대한 남녀 피험자간의 差異에 기인되어 있다. 이러한結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타인들에게서 더 많은 屬性들을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 주며, 여자가 남자보다 他人들의 特性들에 더 敏感하다는 것을 示唆할 것이다.

對象人物의 性別의 전체 신념수 ( $F = 1.29$ ,  $df = 1 / 102$ , ns)와 屬性數 ( $F = 2.04$ ,  $df = 1 / 102$ , ns)에 대한 효과는 유의치 못하였으나, 共通點數(또는 非共通點數)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 $F = 10.45$ ,  $df = 1 / 102$ ,  $p < .01$ ). 동성과 이성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전체 신념수는 동성 ( $\bar{X} = 5.28$ )과 이성 ( $\bar{X} = 5.15$ ) 사이가 비슷했고 屬性數도 동성 ( $\bar{X} = 3.84$ )과 이성 ( $\bar{X} = 3.96$ ) 사이가 비슷하였으나, 共通點數(또는 非共通點數)는 이성 ( $\bar{X} = 1.20$ )보다 동성 ( $\bar{X} = 1.43$ )이 더 컸다. 이것은 이성인물보다도 동성인물에 대해서 공통적인 유대들(예 ; 같은 써클에 속해

있다거나, 종교가 같거나, 또는 그 반대들)에 관한 지각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밖의 主變因들간의 相互作用效果들은 전체 신념수, 屬性數 및 共通點數에서 모두 有意하지 못했다.

#### (나) 피험자들의 好惡人物들에 대한 評價值들의 強度

본 연구의 假說 2는 假說 1에서 誘導된 것으로서, 負的인 他人(O)에 대해서 보다도 正의인 他人(O)에 대해서 屬性들이나 共通點들의 評價值強度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녀 피험자들의 同性과 異性의 好惡人物들에 대한 신념들에 부여된 評價值들이 각각 屬性들과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에 대해 합계되었고 이 두 評價值들이 합계되어서 全體 評價值가 얻어졌다. 表 3에서는 남녀 피험자들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全體 評價值, 屬性들의 評價值 및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의 평균치들이 제시되어 있고, 全體 評價值에 대한 變量分析 結果의 요약이 表 4에 제시되어 있다. 表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평가치에 대한 대상인물들의 호오도의 효과는  $p < .01$  ( $F = 571.21$ ,  $df = 2/204$ )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 $C_1$ )에 대한 全體 評價值( $\bar{X} = 11.58$ )는 가장 싫어하는 인물( $C_2$ )에 대한 全體 評價值( $\bar{X} = -7.59$ )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성적 인물( $C_3$ )에 대한 全體 評價值( $\bar{X} = 2.89$ )보다 더 커졌으며,  $C_1$ 과  $C_2$  사이( $t = 29.74$ ,  $df = 103$ ,  $p < .01$ ),  $C_1$ 과  $C_3$  사이( $t = 16.56$ ,  $df = 103$ ,  $p < .01$ ) 및  $C_2$ 와  $C_3$  사이( $t = 9.42$ ,  $df = 103$ ,  $p < .01$ )의 評價值들의 차이는 모두 有意하였다. 가장 싫어하는 인물에 대한 評價值가 負의인 數值이어서, 이 수치와 正의 數值간의 순수한 극단성을 비교하기 위해 負의 人物들에 대한 評價值들의 負의 부호를 正의 부호로 바꾸어 그리고 正의

〈表 3〉 남녀 피험자들의 동성과 이성의 호오인물들에 대한 評價值들의 합계의 평균치\*

|                        | 동성인물( $b_1$ )            |                                 |                          | 이성인물( $b_2$ )            |                               |                          |
|------------------------|--------------------------|---------------------------------|--------------------------|--------------------------|-------------------------------|--------------------------|
|                        | 정적인물<br>( $C_1$ )        | 부적인물<br>( $C_2$ )               | 중성인물<br>( $C_3$ )        | 정적인물<br>( $C_1$ )        | 부적인물<br>( $C_2$ )             | 중성인물<br>( $C_3$ )        |
| 남자<br>피험자<br>( $a_1$ ) | 12.21<br>(9.25,<br>2.96) | - 8.42<br>(- 7.10,<br>- 1.33)** | 2.48<br>(1.40,<br>1.08)  | 11.71<br>(9.48,<br>2.23) | - 6.79<br>(- 6.33,<br>-.46)   | 3.73<br>(2.87,<br>.87)** |
| 여자<br>피험자<br>( $a_2$ ) | 11.27<br>(8.54,<br>2.73) | - 7.46<br>(- 6.96,<br>-.50)     | 2.46<br>(1.87,<br>.60)** | 11.14<br>(9.02,<br>2.12) | - 7.67<br>(- 7.04,<br>-.64)** | 2.88<br>(2.75,<br>.14)** |

\* 각 칸에서 첫 번째 숫자는 속성수와 유사성수를 합친 것이고,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속성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유사성수임.

\*\* 전체 평균과 하위 평균들의 합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 오차임.

〈表 4〉 全體 個念들의 評價値들의 合計에 대한 变량분석 요약

| 변 산 원     | 자 승 화           | df         | 평 균 자 승  | F         |
|-----------|-----------------|------------|----------|-----------|
| 피험자간      | <b>3199.08</b>  | <b>103</b> |          |           |
| 피험자 성별(A) | 23.08           | 1          | 23.08    |           |
| 집단내       | 3176.00         | 102        | 31.14    |           |
| 피험자내      | <b>49514.67</b> | <b>520</b> |          |           |
| 대상의 성별(B) | 26.26           | 1          | 26.26    | 1.92      |
| AB        | 23.08           | 1          | 23.08    | 1.69      |
| B × 집단내   | 1396.00         | 102        | 13.69    |           |
| 호오도(C)    | 38322.23        | 2          | 19161.12 | 572.21 ** |
| AC        | 16.74           | 2          | 8.37     |           |
| C × 집단내   | 6831.19         | 204        | 33.49    |           |
| BC        | 41.69           | 2          | 20.85    | 1.50      |
| ABC       | 31.86           | 2          | 15.93    | 1.15      |
| BC × 집단내  | 2825.62         | 204        | 13.85    |           |

\*\* p < .01

부호는 負의 부호로 바꾸어 差異를 檢證하였다. 그 結果, C<sub>1</sub>과 C<sub>2</sub> 사이 ( $t = 8.71$ , df = 103, p < .01) 와 C<sub>2</sub>와 C<sub>3</sub> 사이 ( $t = 8.50$ , df = 103, p < .01) 의 評價值들의 差異는 모두 有意하였다. 따라서 호오인물들에 대한 全體 評價值들은 正的 人物이 負的 人物이나 中性的 人物보다 더 極端的이어서 假說 2는 지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인물들의 호오도에 따른 評價值에 대한 效果는 속성들의 評價值 ( $F = 619.69$ , df = 2 / 204, p < .01) 와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 ( $F = 92.43$ , df = 2 / 204, p < .01) 에서 모두 有意하였다. 속성들의 評價值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 $\bar{X} = 9.07$ ) 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 $\bar{X} = -6.86$ ) 과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성적 인물 ( $\bar{X} = 2.22$ ) 보다 더 評價值의 크기가 커졌으며, 이들 평가치들 간의 차이는 C<sub>1</sub>과 C<sub>2</sub> 사이 ( $t = 30.66$ , df = 103, p < .01), C<sub>1</sub>과 C<sub>3</sub> 사이 ( $t = 15.54$ , df = 103, p < .01) 및 C<sub>2</sub>와 C<sub>3</sub> 사이 ( $t = 23.48$ , df = 103, p < .01) 에서 모두 有意하였다. 評價值들의 極端性을 비교하기 위해서 負의 人物들에 대한 評價值들을 負의 부호를 正의 부호로 바꾸어 (그리고 正의 부호는 負의 부호로 바꾸어) 차이들을 검증한 결과, C<sub>1</sub>과 C<sub>2</sub> 사이 ( $t = 6.24$ , df = 103, p < .01) 와 C<sub>2</sub>와 C<sub>3</sub> 사이 ( $t = 9.04$ , df = 103, p < .01) 의 차이들이 모두 有意하였다. 屬性들의 評價值들에 관한 이러한 結果들은 全體 評價值들에 관한 結果들과 마찬가지로 假說 2를 지지하였다.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 $\bar{X} = -2.51$ ) 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 $\bar{X} = -.73$ ) 과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인물

( $\bar{X} = .67$ )보다 評價值의 크기가 더 컸으며, 이들 평균치간의 차이는  $C_1$ 과  $C_2$  사이( $t = 11.35$ ,  $df = 103$ ,  $p < .01$ ),  $C_1$ 과  $C_3$  사이( $t = 8.33$ ,  $df = 103$ ,  $p < .01$ ) 및  $C_2$ 와  $C_3$  사이( $t = 6.78$ ,  $df = 103$ ,  $p < .01$ )에서 모두 有意하였다. 負的 人物들에 대한 評價值들의 負의 부호를 正으로 바꾸어(그리고 正의 부호는 負의 부호로 바꾸어) 차이들을 검증한 결과,  $C_1$ 과  $C_2$  사이( $t = 7.89$ ,  $df = 103$ ,  $p < .01$ )의 評價值들간의 차이는 有意하였으나,  $C_2$ 와  $C_3$  사이( $t = 0.32$ ,  $df = 103$ )의 차이는 有意치 못하였다. 이들 결과들에서도 共通點들의 評價值가 負의 人物보다 正의 人物에 대해 더 컸으므로 假說 2 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속성들의 評價值, 共通點들의 評價值 및 이 두 評價值들의 합계의 모두는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나 중성적 인물의 評價值들보다 더 컷으로, 假說 2는 지지받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피험자의 性別效果는 全體 評價值들( $F < 1.0$ ,  $df = 1/102$ , ns), 特性들의 評價值들( $F < 1.0$ ,  $df = 1/102$ , ns) 및 共通點들의 評價值들( $F < 1.0$ ,  $df = 1/102$ , ns) 모두에서 有意치 못하였으며, 이러한 結果들은 앞에서 제시된 屬性數와 全體 信念數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結果들과 대비된다.

평가치들에 대한 對象人物의 性別의 effect는 屬性들의 評價值들에서는 有意하였으나( $F = 5.26$ ,  $df = 1/102$ ,  $p < .05$ ),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들( $F = 2.22$ ,  $df = 1/102$ , ns)과 全體 評價值들( $F = 1.92$ ,  $df = 1/102$ , ns)에서는 有意하지 못하였다. 동성과 이성의 대상인물들에 대한 屬性들의 評價值들은 同性( $\bar{X} = 1.17$ )보다 異性( $\bar{X} = 1.79$ )에 대해서 더 컷으나,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들에서의 同性( $\bar{X} = .92$ )과 異性( $\bar{X} = .71$ )의 評價值들 사이의 차이와 全體 評價值들에서의 同性( $\bar{X} = 2.09$ )과 異性( $\bar{X} = 2.50$ )의 차이는 작았다.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들에서 對象人物의 性別과 好惡度 變因들간의 相互作用效果가 유의하였다( $F = 4.38$ ,  $df = 2/204$ ,  $p < .05$ ).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同性의 인물의 평가치( $\bar{X} = 2.85$ )는 異性的 인물의 평가치( $\bar{X} = 2.17$ )보다 유의하게 더 컷으나( $t = 2.33$ ,  $df = 103$ ,  $p < .05$ ), 가장 싫어하는 同性의 인물의 평가치( $\bar{X} = -.91$ )가 異性的 평가치( $\bar{X} = -.55$ )보다 더 負의인 경향이 있었고( $t = 1.67$ ,  $df = 103$ ,  $p < .10$ ),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성적인 同性의 인물의 평가치( $\bar{X} = .83$ )는 異性的 인물의 평가치(.50)보다 더 큰 경향이 있었다( $t = 1.67$ ,  $df = 103$ ,  $p < .10$ ). 다시 말하면, 同性 인물들에 대해서는 共通點들의 評價值들은 좋아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사이에서 큰 차이를 일으키지만, 異性 인물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비교적 더 적게 일으켰다. 그 밖의 主要因들간의 相互作用效果들은 全體 評價值, 屬性들의 評價值, 共通點들(또는 非共通點들)의 評價值에서 모두 有意치 못했다.

## 論 議

본 실험결과들은 負的 人物보다 正의 人物들에 대한 信念들의 數와 評價의 強度가 더 강할 것이라는 假說들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信念들의 數와 評價의 強度에 관한 資料들은 서로 밀접하게 일치되는 결과들을 보였다. 全體 信念들의 數와 屬性數에 관한 資料에서, 正의 人物들의 數들이 負의 人物들의 數들보다 더 커졌고 負의 人物들의 數들은 中性的 人物들의 數들보다 더 커졌다. 共通性數(또는 非共通性數)에서, 正의 人物의 數가 負의 人物의 數보다 더 커거나 負의 人物의 數와 中性的 人物의 數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동일한 패턴의 結果들이 信念들에 부여된 評價值들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結果들은 對人關係의 三元關係的 構造가 好惡人物들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強力하게 나타내 준다. 正의 P/O 關係에서는 負의 P/O 關係나 中性的 P/O 關係에서 보다도 더 많은 對象(O)들이 介在되어 있으며, 結果되는 評價強度도 더 強한 것을 나타내므로, 正의 P/O 關係가 負의 P/O 關係보다도 더 安定性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實際의 對人關係에서 負의 關係는 少數의 信念들이 介在되어 있고 負의인 評價의 強度도 弱하므로, 對人的 相互作用의 증가나 긍정적 결과를 갖는 接觸의 증가에 의해서 正의 關係로 變化되기 쉬울 것이다. 屬性들에 관한 信念들의 數에서, 中性的 人物보다 正의이나 負의 人物들이 더 큰 것은 中性的 人物보다 兩極端의 人物에 대한 相互作用의 頻度나 그에 따른思考量이 더 큰 데에 基因될 것이다. 아마 好惡의 極端으로 갈수록,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相互作用이나 經驗을 갖게 되고 그들에 관한 認知들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한편, 正의 人物과 負의 人物에 대한 信念數들이 차이가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Heider(1958)의 三元的 社會關係에 關한 理論이 正과 負의 P/O 關係들에 과잉 일 반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앞으로의研究들에서는 正의 P/O 關係와 負의 P/O 關係의 構造의 差異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 對人關係의 變化나 過程에 관한 理論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피험자들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성적 인물에 관한 信念들에 부여한 全體 評價值들은 +2.89로서 +와 -의 中間인 0보다 더 커졌다. 이러한 結果는 Parducci(1963, 1965, 1968)가 우리의 判断들의 心理的 中間點이 판단되는 항목들의 객관적 중간점과 中央值 사이의 중간쯤에 놓이는 것 같다는 발견과 일치된다. 따라서 三元關係에 分析에서도 他人에 대한 態度의 心理的 中間點을 定하는 問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피험자들은 남자 피험자들보다 대상인물들에 관한 屬性數(각각  $\bar{X} = 4.23$  對 3.55)와 아울러 全體 信念數(각각  $\bar{X} = 5.49$  對 4.93)가 더 많았다. 그

더나 評價值에서 이와 같은 差異는 없었다.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他人들에 대해 더 詳細한 信念들이나 知識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여자 피험자들이 남자 피험자들보다 조사지에 응답하는 과정을 하나의 시험이나 Orne (1962)가 지적한 요구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더 자각한 데에 기인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결과가 他人들에 대한 知覺이나 認知에서의 순수한 性差를 反映한다면, 三元關係에 관한 理論化에서도 이 要因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여자들이 信念數에서 남자들보다 더 많지만, 評價值에서 남자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들이 他人들에 관해 상세한 지식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식들은 評價值에 直接 영향을 주지 않거나 評價值가 덜 極端的인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의 각 信念들의 評價值들은 比較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인물들과의 共通點들의 數는 이성 인물( $\bar{X}=1.20$ )들보다도 동성 인물( $\bar{X}=1.43$ )들에 대해서 더 커다. 이는 이성 인물보다 동성 인물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發達的 特性이나 文化的 環境에 基因될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이성 인물들보다는 동성 인물과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써클에 가입하는 것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성보다 동성에 대해서 더 많은 共通點들을 지각하지만, 앞으로 남녀 간의 相互作用의 차이가 덜 있게 되는 쪽으로 변화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差異는 작아질 것이다. 한편, 對象人物들에 대한 評價值 중에서 屬性들의 評價值들에서 동성보다( $\bar{X}=1.17$ ) 이성( $\bar{X}=1.79$ )에 대해서 더 큰 수치를 보인 것은 피험자들이 同性보다 异性을 더 좋아하게 되는 生物學的이거나 發達的 性質들을 反映할 것이다. 따라서 Ideider (1958)의 三元關係나 洪大植(1985)의 擴張 模型들에서는 同性과 异性에 대한 이러한 評價值들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洪大植. (1982). 對人關係의 均衡에 대한 새로운 理論的 接近. *社會心理學研究*, 1, 44-77.
- 洪大植. (1985). 三元的 社會關係에서의 認知的-感情的 反應의 力學과 對人關係의 過程, *社會心理學研究*, 2, 61-93.
- Aderman, D. (1969). Effects of anticipating future interaction on the preference for balanc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14-219.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runer, J. 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of people. In G. Lindzey (Ed.).

-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634–654. Reading, MA: Addison-Wesley.
- Byrne, D. (1961).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ttitude similar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13–715.
- Byrne, D., & Nelson, D. (1964).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 similarity-dissimilarity: The effect of topic importance. *Psychonomic Science*, **1**, 93–94.
- Gutman, G. M., & Knox, R. E. (1972).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pleasantness, tension and consistency ratings of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351–35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Kandel, D. B. (1978). Similarity in real-life adolescent friendship pai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306–312.
- Newcomb, T. 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ewcomb, T. M. (1959).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3. New York: McGraw-Hill, pp. 384–422.
- Newcomb, T. M. (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Holt.
- Newcomb, T. M. (1963). Stabilities underlying changes i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376–386.
- Orne, M. T. (1962). On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m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17**, 776–783.
- Parducci, A. (1963). Range-frequency compromise in judg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77**(2).
- Parducci, A. (1965). Category judgment: A range-frequency model. *Psychological Review*, **72**, 407–418.
- Parducci, A. (1968). The relativism of absolute judgments. *Scientific American*, **219**, 84–90.
- Price, K. O., Harburg, E., & Newcomb, T. M. (1966).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65–270.
- Sears, D. O., & Whitney, R. E. (1973). Political persuasion. In I. deS. Pool, W. Schramm, F. W. Frey, N. Maccoby, and E. B. Parker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pp. 253–289. Chicago: Rand-McNally.
- Smith, R. C., & Dixon, T. R. (1971). Effects of exposure: Does frequency determine the evaluative connotations of words?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5**, 124–126.
- Zajo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Suppl., Pt. 2), 1–29.

## **ABSTRACT**

### **Number of Beliefs and Strength of Evaluations of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Persons**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d that (1) the number of beliefs about attributes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ositive other persons are greater than the number of those beliefs of the negative other persons and (2) thus, evaluative strength of the positive other persons are greater than that of negative other persons. Fifty-two male and fifty-two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responded a questionnaire form by writing the name of the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other persons of same and opposite sexes, writing down the attributes and common charateristics or common bonds of the persons, and rating those beliefs in terms of likableness and dislikableness. The numbers of attributes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ositive persons are greater than those of the negative and neutral persons. The same pattern of results were obtained for the evaluative strength of those beliefs. These results provide the support for present hypotheses. The female students gave greater number of beliefs than male students, but evaluative strength of those beliefs are not differed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gave higher evaluative ratings to the opposite sex persons than to the same sex persons and perceived more common charateristics of same-sex persons than those of opposite-sex person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 mod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theories of triadic social relations were discussed.